



보도자료

10월 10일(화) 조간(10.9.1200이후보도)

배 포 일	2017. 10. 9./ (총 14 매)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과 장	우 향 제	전 화	044-202-3390
담 당 자	노 옥 균	인 확	044-202-3399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요!

- 보건복지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이화여대 목동병원과 제일병원 김문영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
- 임산부 64.2% 좌석양보 경험, 47.8%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KBS 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4)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단체)과 제일의료재단 제일 병원 김문영 교수이다.
 -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02년부터 모자센터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으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여 이화여대 목동병원 분만 산모의 모유수유율은 95%로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내 최초 이른둥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인 '이화도담도담지원 센터'를 '13년에 개소하여 130여명이 지원 받았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모성건강 향상을 위해 '16년부터 '태아치료센터'와 '조산예방치료 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생친구

- 김문영 교수는 제일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쌍둥이 임신클리닉 개설시부터 고위험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약 1만 7000명의 분만 진료에 참여하였고, 산전 초음파진단과 태아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선도적역할을 하며 29년간 산과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태교 미니 음악회, 아기태교 강좌 등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 * 임산부의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05년에 제정되었음.
- □ 한편,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주요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 올해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본인** 부담율 30%)을 적용한다.
 -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통해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하여 산전진찰 등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해 주고 있다.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올해 **1월부터 70만원 →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 조산아* 외래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 *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한정열)와 함께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모유 수유 중안전한 약물사용**을 돕기 위해「모유 수유 중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하여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붙임3 참조)
-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는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가 수행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산부가 알아야 할 안전한 모유 수유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 되었다.









평생친구

- □ 한편, 임산부의 날(10.10)을 맞이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60.2%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6년 5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조사대상 총 10,613명(임산부 3,212명, 일반인 7,401명) 조사기간 : '17.8.22.~ 9.8., 조사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임신육이종합포털아이시랑, 맘스다이어리)
-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주로 **좌석양보(64.2%)**,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3%), **짐 들어주기**(8.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1%), 주변에 임산부가 없어서 (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임산부 배려를 위해 우선 되어야 하는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47.8%), 대중교통 전용좌석 등 편의시설 확충(25.9%) 등으로 나타났다.
- 임산부들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임산부 배려 인식교육(44.1%)** 및 **홍보**(24.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육, 보육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주거지원 강화 등 결 혼·출산 친화사회 구축으로 전환하여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제12회 임산부의 날』 행사계획 및 주요내용

- 2. 임산부의 날 유공자 명단
- 3.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주요내용
- 4. 임산부배려 캠페인 및 엠블럼 의미
- 5.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워 현황





평생친구

붙임1

「제12회 임산부의 날」행사 계획 및 주요 내용

풍요의 달(10)과 임신기간(10)을 의미하는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함

Ⅰ. 임산부의 날 제정

- 목 적: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배려문화 확산 도모
- O 근 거: 「모자보건법」제3조의2(임산부의 날, '05.12.7. 신설)

Ⅱ. 행사개요

- 일 시 : '17. 10. 10.(화) 14:00~16:00
 - * 식전행사 13:00 ~
- **장 소 : KBS 아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
- **참 석 : 임산부 및 가족, 유공자** 등 총 350여명
- 주요내용
- (식전행사) 임산부 참여 프로그램(체험부스 운영, 태교미니음악회 등)
- (기 념 식) 개회식, 유공자 포상, 포상 기관 우수사례 발표등
- (축하행사) 축하 공연(가족 태교 콘서트 및 아기 태교 강좌)











Ⅲ. 행사 주요내용

□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 일시 : 10. 10.(화) 13:00 ~ 13:50

○ 장소 : KBS 아트홀 로비

○ 운영내용 : 사진, 그림, 문구(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태명 등)를 삽입하여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 일시 : 10. 10.(화) 13:00 ~ 13:50

○ 장소 : KBS 아트홀 로비

○ 운영내용 : 다양한 색깔의 비누 꽃과 리본을 이용하여 비누

꽂 바구니 만들기

□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 일시 : 10. 10.(화) 13:00 ~ 13:50

○ 장소 : KBS 아트홀 로비

○ 운영내용 : 다육식물과 재료를 이용하여 화분 만들기 체험

□ 맘카페 운영

○ 일시 : 10. 10.(화) 13:00 ~ 14:50

○ 장소 : KBS 아트홀 로비

○ 운영내용 : 임산부 휴식공간 및 건강차, 음료 등 제공

□ 홍보 책자 배부

○ 일시 : 10. 10.(화) 13:00 ~ 13:50

○ 장소 : KBS 아트홀 로비

○ 책자명 :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 아빠

라서 행복해요 등









평생친구

불임2 「임산부의 날」유공자 명단

훈격	성명 (단체)	소속 직위	공적요약
대통령 표창		이화여대 목동병원	 ○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환자의 건강과 치료의 대표적인 여성병원으로 모성건강과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에 크게 기여 ○ '02년 개소한 '모자센터'는 적극적인 모유수유 권장으로 '04년, '08년, '13년 유니세프에서 선정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 ○ '01년 르봐이예분만법을 국내처음 도입하여 스트레스없는 분만환경 조성및 '찾아가는 출산교실' 운영으로임산부, 태아 건강증진에 기여 ○ '13년 개원한 '이화도담도담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의이른둥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재활치료,부모양육지원 등을 24개월까지 지원및 시행 ○ '태아치료센터'설치('16년), 고위험임산부 등의 조산예방 및 치료를위해국내최초 '조산예방치료센터'설치('16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설치('17년), 가임력보존센터'를 설치('17년)하여운영중 ○ 32주미만의 조산 위험성을 진단하기위한 조성물과진단키트, 진단방법을 개발하여특허등록('15년)하고,조산예방 가이드라인 제작중
	김문영 (金文暎) (1963년)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교수	 ○ 우리나라 최초 '쌍둥이 임신 클리닉'개설('94년) 및 소프롤로지 분만법('97) 도입시부터 참여하여 주로 고위험임산부를 진료하며 분만법 교육(약 1만명) 및 보급 확산 ○ '98년 국내 최초 바스켓션트롤을 이용한 태아 단락술 시행, '10년 국내 최초 3D초음파를 이용한 자궁내 태아갑상선종 치료로 건강한 출산에 기여 ○ 임신성 당뇨병 산전진단과 치료 전문가이며, 산전 초음파진단과 태아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산과분야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함









훈격	성명 (단체)	소속 직위	공적요약
	박미혜 (朴美惠) (1967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간호사	o 1988년 동산병원에 입사하여 병동간호사, 분만장· 태아·산모집중치료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모성 간호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7년간 분만장과 산과병실에 근무 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환자안전에 솔선수범 함
국무 총리	박현숙 (朴賢叔) (1958년)	대구 가톨릭 대학교 교수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 및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다년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지원 및 정보제공, 홍보 등으로 모유수유 인식도를 향상 시키고, 육아 상담, 출산장려 홍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
표창	이종민 (李鐘敏) (1956년)	이화병원 원장	O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32년간 약 3만8천건 출산 및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 임산부 배려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
	이순정 (李順貞) (1981년)	울산 미즈병원 수간호사	o 간호사로 신생아 분만 간호 및 신생아의 영양·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관리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활동에 앞장서 모유수유 교육, 상담,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함









평생친구

붙임3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 필수지식」 요약

Q1. 모유 수유 중에 사용되는 피부연고, 안약, 치질 연고는 수유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요?

A.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에게 안면, 복부 등의 피부 트러블로 인해 사용되는 스테 로이드연고, 결막염에 사용하는 안약 그리고 치질 연고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때 이 약물들은 전신 흡수가 잘 안되어 실제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갈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O2. 모유 수유 중에 급성질환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괜찮나요?

A. 모유 수유 중 유선염, 감기, 위장염, 방광염 같은 급성질환으로 항생제, 소염 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실제로 가는 약의 용량은 엄마가 복용하는 용량의 1~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약을 복용하면서 안전하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혹시나 아기에게 복용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젖을 적게 먹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모유량이 줄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특히 적극적 모유수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Q3. 모유 수유 중에 만성질환으로 사용되는 약들은 괜찮나요?

A. 모유 수유 중에 만성질환으로 갑상선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이 있는 경우라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당뇨병이 모유 수유아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유부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슐린의 경우 분자량이 커서 모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질환, 고혈압, 천식에







사용되는 약물들도 모유로 넘어가는 양은 아주 적어서 수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O4. 모유 수유 중 금기 시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모유 수유부에게 절대 금기되는 약물은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항암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들 약물들이 절대 금기되는 이유는 수유아가 이런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 이들 약물에 의해서 수유아에게 2차적인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모유 수유 중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A. 모유 수유 중에는 풍진, 수두 같은 생백신이든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사백신이든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열(Yellow fever)이 있는 경우 9개월 미만의 수유아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O6. 모유 수유 중 피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유 중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에도 1년 내 4%에서 임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임이 필요합니다. 프로 게스테론 또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은 출산 후 6주 이후에는 모유 양의 변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 장치(루프)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유성 무월경 방법(Lactation amenorrhea method)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배란이 되지 않아 피임 효과가 높습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아기가 6개월 미만, 월경을 하지 않고 보충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수유간격이 4시간, 밤에는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98% 이상의 피임효과가 있습니다.







평생친구

O7. 유방암 검사 중 모유 수유 가능한가요?

A. 유방암 검사를 위한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그리고 미세 침 흡인 검사 시 모유 수유는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O8. 모유 수유 중 커피 마셔도 되나요?

A. 수유 중 하루에 1~2잔 커피를 마시는 경우 아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채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감기약, 진통제, 다이어트 약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O9. 모유 수유 중 음주 가능한가요?

A.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 중 음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 1잔을 마시는 경우 2시간 이후에 모유에서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2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소주 1병에는 7잔이 나오므로 14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 약속이 있는 경우 미리 유축을 해 놓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10. 모유 수유 중 흡연 가능한가요?

A.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는 경우 신생아에게 다양한 유해물질이 모유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4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엠블럼 의미

□ 임산부의 날(10.10.) 제정 의미

○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

※ 근거:「모자보건법」제3조의2(임산부의 날, '05.12.7. 신설)

□ 임산부배려 캠페인 배경 및 목적

- **초기 임신부**들은 유산의 위험,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외견상 표시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민들이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산부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소 안내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보급하여 초기 임신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들이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소개



-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표현
-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결합하여, 강한 주목성을 나타냄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강조
-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 내기 위해 분홍을 주조색으로 사용









평생친구

붙임5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

분야	사업명	자격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前 고운맘카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5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지 : 70만원 * 다태아 임신 : 90만원
임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지원
출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임산부와 영유아	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평가 결과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2주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임신 3개월까지) 및 엽산제 (임신 16주이상)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 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신생아 난청선별 검사 쿠폰 지원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어린이국가예방 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BCG, B형간염 등 17종 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	만 6세까지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 무료 이용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만 84 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급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 · (지원대상) 여성장애인(1~6급 등록)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인 자)한 자
- · (서비스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